

박물관 도서관의 미래 방향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Museum Library: Focusing on National Museum of Korea Library

박 옥 남 (Ok Nam Park)**

차 성 종 (Sung-Jong Cha)***

김 신 영 (Sin-Young Kim)****

초 록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가 대표 박물관 도서관으로서 박물관 자료의 수집·정리·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 인력, 낮은 인지도를 고려할 때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현황조사,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이용자 면담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박물관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인 장서,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물론, 박물관 내에서의 도서관 역할을 증대하고 인지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a nation's representative museum library that provides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es, and utilize museum collections. Considering the limited budget, staffing, and users' awareness of the museum libraries in general, the rol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v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ibrary as a specialized library.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e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ibrary, preliminary studies,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and user &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udy suggested future directions to sec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library, and development plans for collection, service, and human resources by museum library, and also to increase the role of library in museum and to improve users' awareness.

키워드: 박물관, 전문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발전방안, 서비스

Museum, Special Library, National Museum of Korea, Improvement Plan, Service

* 본 연구는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ponda@smu.ac.kr) (제1저자)
***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jcha@sewc.ac.kr) (공동저자)
****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inyoung@kiu.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8월 27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5-33,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4.005]

1. 서론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1973년에 개관된 이래, 박물관 자료의 수집·정리·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의 박물관학 관련 자료 16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 대표 박물관 도서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도서관법」 제41조에서 명시된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활동 및 기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의 소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총 22개의 박물관 도서관(자료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등 3개 관에 불과하다. 또한 별도의 박물관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는 도서관 역시 전남대학교 박물관 자료실,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등 4개 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제공되는 장서, 정보서비스, 상호대차, 이용교육 등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도서관의 성장가

능성은 많다. 모 기관에 소속되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문분야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물관·도서관·기록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복합문화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박물관의 문화기관·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박물관 자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미영 2010).

박물관 도서관의 내외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간 박물관 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미영(2010) 및 조찬식과 강성란(2015)의 연구를 통해서 국내 박물관 도서관이 직원이나 예산이 한정적임과 장서 제공 외에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미래 방향성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서비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가 대표 박물관 도서관으로 국내 박물관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양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2개의 지방박물관과 1개의 전시관에서 제공되는 도록 및 발간물 등을 수집·보존하며, 박물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을 도서관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국가 최대 규모의 박물관 도서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 진화에 관한 연구는 다른 국립박물관 및 기타 박물관 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박물관 도서관운영 체계

화, 예산 운영모델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현황분석, 이용자 및 전문가 면담, 선행연구 및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 정책, 연보, 홈페이지 리뷰 등을 통하여 도서관 목적, 기능, 자원,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부이용자 7인 및 외부이용자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목적적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되었다. 이용대상자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박물관 도서관의 대출 및 이용현황 데이터를 참고하였으며, 박물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였다. 내부이용자는 박물관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박물관 도서관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전문가 면담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일반적인 인식, 장서, 서비스, 공간, 조직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전문가 면담은 국내 문헌정보학, 사학과, 건축학 등 박물관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 3인, 박물관 사서 2인, 미술관 사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 사례조사를 통해 도서관 역할, 핵심기능, 서비스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내 박물관 도서관은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실, 국립해양박물관 도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외 박물관 도서관은 스미스소니언 도서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대영박물관 도서관을 조사하였다. 국외 박물관 도서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미명(2010), 조찬식과 강선란(2015), 천진기(2015) 등 박물관 도서관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박물관 도서관 우수사례로 언급되었던 기관 중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전담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곳, 박물관 도서관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관 조직·장서·서비스 등

〈표 1〉 연구방법

방법론	상세
1.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현황 분석	- 현황 분석: 『2015 국립중앙박물관 연보』, 『2016 국립중앙박물관 연보』, 『2017 국립중앙박물관 연보』, 보고서 및 웹사이트 분석
2. 이용자 면담	- 박물관 직원 등 내부이용자 7인, 일반이용자 3인
3. 전문가 자문	- 박물관 도서관 담당자, 문헌정보학, 역사학, 건축학 연구자 등 7인
4.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 사례조사	-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실, 국립해양박물관 도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스미스소니언 도서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도서관, 대영박물관 도서관 등
5.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전략 제시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미래 서비스 방향 및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의 핵심기능 파악이 가능한 곳, 국외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연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사례조사는 웹사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전담사서 이메일 교신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현황조사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하위의 '도서관의 운영·관리'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교류단 - 교육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박물관 관련 자료 확충을 통한 연구·전시·보존·교육 등 업무지원, 박물관 관련 국·내외 전문자료 수집 및 서지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박물관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 출간물의 수집·보존, 개인 및 관계 유관 기관 기증자료 수집·정리, 관련 학계 및 연구자 중심의 이용자 참고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사서직 1명, 공무원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서직 1명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의 인력이 순환 근무하고 있다. 장

서의 경우, 2018년 5월 기준 단행본, 연속간행물, 멀티미디어 자료, 고서, 특수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64,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DBpia 등 국내 2종을 구독하고 있다. 자료유형별 분포는 단행본이 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장자료의 주제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역사, 예술, 총류 순으로 자료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주제 중심의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장서 소장의 경향 및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서비스는 내부 학예사 및 학예관을 주 이용자로 하여 희망자료 신청, 상호대차 등의 간단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만 가능하며, 주제 게이트웨이, 신착자료 안내, 큐레이션, 주제전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도서관 이용은 하루 평균 100명 정도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월 평균 관람객이 29만 명(국립중앙박물관 2017)인 것에 비하면 박물관 관람객의 도서관으로의 유입은 요원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현황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박물관 내부직원 및 관련 학계 연구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등 국내 최고의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주요 도서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박물관 및 역사, 문화재, 고고학, 미술, 예술, 인류학, 보존과학 관련 정보자료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축적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전체 소장 장서 대비 단행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

〈표 2〉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소장자료 현황(2018. 5. 기준)

단위 (점, 비율)	단행본				연속 간행물	멀티 미디어	고서	특수 자료	계
	한국서	일본서	동양서	서양서					
2018. 5.	57,516	38,131	13,246	9,687	41,184	3,963	428	343	164,508
	35.0%	23.2%	8.0%	5.9%	25.0%	2.4%	0.3%	0.2%	100%

주제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수량 (책, 점)	7,406	1,604	2,617	5,302	729	1,207	34,699	938	3,438	50,239	164,508
비율(%)	6.8	1.5	2.4	4.9	0.7	1.1	32.1	0.9	3.2	46.4	100

이며, 고서나 특수장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현재 국내 2종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전문학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전문도서관의 주제별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서, 특수장서, 연속간행물, 학술저널, Web-DB 등의 다양한 장서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도서관 서비스는 자료신청, 상호대차 등의 단편적인 참고서비스 운영에 제한되고 있으므로 전문도서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주제전문서비스의 제공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제전문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선행연구

박물관 내 도서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전문도서관 선행연구나 사례조사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관련 연구로는 김은정(2003),

이미영(2010), 조찬식과 강성란(2015)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은정(2003)은 박물관 교육자료의 역할 및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내 박물관 자료실 장서 구비현황을 조사하였다. 박물관이 주로 소장하고 있는 인쇄매체에는 박물관 가이드, 카탈로그, 포스터, 팸플렛, 도록, 리플렛, 셀프가이드, 교사용 지침서 등이고, 시청각매체는 오디오 가이드, 비디오, 온라인 자료 등이며, 복합매체는 CD-ROM, DVD, 터치스크린, 온라인 자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부족하므로 박물관 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미영(2010)은 박물관 도서관의 역할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 학예사나 연구원을 비롯한 내부직원이 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이었으며, 그 외에 관련 분야 연구자나 학생 등이 박물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예산이나 직원 수가 한정적이며 주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시도록, 보고서, 포스터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국외 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기본 장서 외에 연속간행물 구

독,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기관 생산물의 체계적 수집, 전문사서 배치, 충분한 열람석 제공 등이 특징이었다. 연구결과, 박물관 자료실의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관리자에서 수집가로서 사서의 역할 변화, 특성화된 컬렉션 확대, 기관 아카이브의 기능 수행,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조찬식과 강성란(2015)은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담당자 설문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로 1명의 사서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주 이용자로는 박물관 직원, 소장자료는 조사/연구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자료, 도록 등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자료 검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희망도서 신청, 게시판, 이용자 개별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료실도 있었다. 역사, 사회과학, 예술, 종류, 문학, 기술과학 주제에 대한 자료가 많았으며, 참고정보서비스나 유료 데이터베이스 구독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이용자층 확보, 정보서비스 확대, 자료실의 전문성 강화,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도서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역할, 서비스, 공간, 홍보 및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용식, 황진용, 이용재(2016)은 해양 전문도서관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은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전문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일반 대중을 위한 해양 관련 분야의 정보제공과 이해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비스 영역으로는 남은경(2018)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구데이터로 연구보고서, 위탁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 자문보고서, 연구논문, 출장보고서 등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이 필요함과 전자도서관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미향(2014)은 전문도서관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 정보데이터의 전 생애주기에서의 수집과 가공을 포함한 도서관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아카이브에 대한 도서관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황제연(2014)은 국방과학연구소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참가사례 발표를 통해 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북카페를 오픈하고, 장서개발의 성문화, 주제전문서비스, 학술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같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유안나(2015)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도서관의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참가사례를 통해 이용교육, 디지털 콘텐츠 구축, 연구기록물관리체계구축, 원문DB 및 전자저널의 원문확보, 특허동향이나 학술지목차 등과 같은 맞춤 정보서비스 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라키비움에 맞추어 연구기록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도서관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문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로 한종엽과 서만덕(2013)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리모델링 사례발표를 통해 전문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은 인쇄 매체 소장공간에서 복합미디어 활용공간으

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습득공간, 디지털 활용공간, 문화공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동식 서가, 이용자 열람공간의 확대, 도서관 홍보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한 로비 공간 활용을 제시하였다. 허정민과 한혜련(2015)은 전문도서관 공간구성에 고려해야 할 요소 도출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열람공간은 다른 공간과의 접근성, 디자인 통일성 및 차별화, 서비스 공간은 이용자 동선의 단순화, 모든 이용자의 접근 편리성, 관리업무는 다른 공간과의 접근성, 서비스 제공자 동선의 단순화 요소가 도출되었다. 한미희(2018)는 전문도서관의 새로운 공간 활용을 위하여 학술자료를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변화를 반영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성원 간 소통, 치유 및 사색, 학습 및 연구공간, 자유로운 열람 공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테마별 장서 큐레이션, 소규모 모임공간, 주제전문서비스, 연구원 라운지 등의 공간 및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문도서관 홍보 및 마케팅으로는 김경아(2011)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자 교육, 천진기(2015)는 소셜미디어를 홍보 및 도서전시 안내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다정(2017)은 전문도서관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도서관 공간과 독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박물관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 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아카이브 관점, 라키비움 및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정보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박물관 도서관에서의 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은 물론, 박물관 가이드, 도록, 교사용 지침서, 팸플렛, 리플렛,

포스터,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해야 하며, 박물관 생산물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전문도서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부이용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일반 대중을 위한 관련 지식정보의 이해 및 제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5. 박물관 도서관 사례

5.1 국내 박물관 도서관 사례

5.1.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자료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 역사 및 전통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서울역사자료실은 서울학, 박물관학 및 서울역사의 특화된 장서를 수집·개발하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전시·교육·조사연구·보존 등의 각종 연구성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보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실 이용 대상은 직원, 연구원, 도슨트, 자원봉사자이며, 일반 이용자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증 발급받은 후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장서는 2018년 7월 기준 약 48,000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학콘텐츠, 한국사콘텐츠 등 4종의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서비스는 열람·대출과 같은 기본 정보서비스 외에 신착도서 및 서울테마도서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특징으로는 박물관 개관 이래 축적된 서울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2014년부터

‘서울 역사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7월 기준 총 567건(도서 549건, 비도서 1건, 연속간행물 17건)의 원문자료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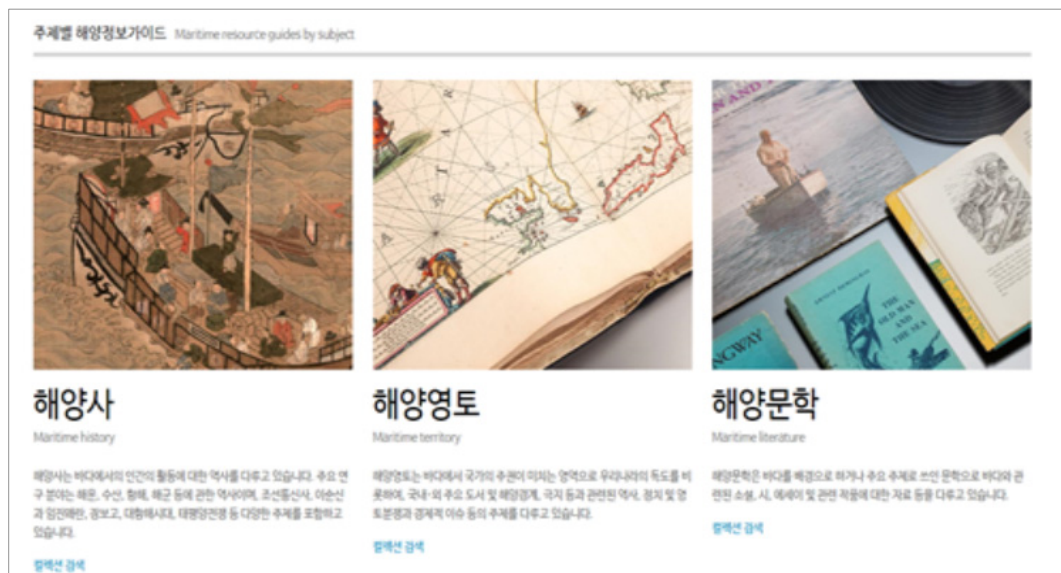
5.1.2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과 관련된 귀중한 국내외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다양한 해양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도서관은 2012년에 개관하여 해양문화, 해양역사 영토, 해양관련 도록 및 해양의 모든 분야 자료와 박물관학, 고고학 관련 자료 등 국내·외 전문 도서, 학술지 및 디지털 매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장서는 2018년 7월 기준 해양 및 박물관 관련 도서 약 45,000권, 어린이 해양도서 약 4,500권, 해양 주제 비도서 약 2,000점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로 주제별 해양정보가이드, 학술지

목차, 참고정보, 선택정보제공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문화정보동향 서비스, 해양관련주제 연구자료 조사 제공, 소장자료의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내부 직원만 허용)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주제별 해양정보 가이드로 해양사, 해양영토, 해양문화 주제에 대한 소장자료 안내, 세계의 해양박물관, 전시정보, 관련 기관 및 사이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

5.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내 위치한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의 기능을 통합한 리키비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정보 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정보 열람, 전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는 아시아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은 2015년에 개관하였으



<그림 1>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주제별 해양정보가이드

며,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장서는 총 라이브러리파크에 사진, 예술, 소리와 음악, 공연예술 등의 주제 장서 43,129권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관에 16,211권(2017년 11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는 관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전문관을 구성하여 아시아 사진, 아시아 공연예술 등 총 13개 주제로 라이브러리파크 주제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다.

5.2 국외 박물관 도서관 사례

5.2.1 스미스소니언 도서관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현재 19개의 박물관과 동물원, 그 외 다수의 연구센터와 지원기구, 144개의 박물관과 제휴하고 있는 세계 최대 문화기관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조직 및 운영현황으로 스미스소니언 도서관(Smithsonian Libraries)은 워싱턴 DC, 메릴랜드, 뉴욕, 파나마 등 스미스소니언 재단 박물관에 존재하는 21개 도서관과 자료 보존실 및 이미지처리실 등이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체제로 운영되며, 소장자료는 Smithsonian Institution Research Information System(SIRIS)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SIRIS는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도서관, 아카이브, 연구소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이며, 스미스소니언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자원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 도서관 장서는 자연사, 과학기술사, 고고학, 우표수집 및 우편사, 아프리카 아시아 예술과 초상화, 미국 예술 및 초상화 등과 관련한 총 200만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4만여 권이 넘는 희귀서와 방대한 규모의 만국박람회 및 제조사 판매 카탈로그, 필사본

등을 소장하고 있다.

서비스는 도서관의 부서별 업무는 도서관 장서개발과 정리, 보존 및 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미소니언 재단 내부 학예사 및 연구원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자료의 보존 및 매체변환, 디지털화,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특수자료의 관리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연구지원과 특수장서의 관리에 약 120명의 직원이 배속되어 주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미소니언 재단 소속기관 학예사와 연구진의 연구업적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주로 도서관 직원이 서지사항을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원문을 수집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85,625건의 출판물이 올라와 있으며, 이 가운데 원문자료는 21,256건이다.

5.2.2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도서관 및 연구센터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1870년 설립 이래 박물관과 미술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예술연구를 장려·발전시키고, 예술과 관련된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및 운영현황으로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도서관 및 연구센터(Libraries and Research Centers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는 2018년 5월 기준 총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박물관 사서가 22명, 그 외 직원은 관리자, 기술자, 보존전문가, 장서개발담당자, 교육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메인도서관인 왓슨도서관(Thomas J. Watson Library)과 노렌도서관(Nolen Library) 등 11개의 부서별 도서관(department library)과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장서는 997,000종의 단행본, 전서목록

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00종의 연속간행물, 기타 박물관 역사 및 예술가 관련 파일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 박물관 출판물, 회의록, 갤러리 레코드, 아카이브 컬렉션 등에 대한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블로그 및 뉴스레터 등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장서개발정책, 소셜미디어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서비스로는 온라인 목록인 'Watsonline'과 'Digital Collections'에서 소장자료 및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관 블로그를 통하여 도서관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Digital Collections'은 박물관 도서관의 희귀본이나 귀중서,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박물관 직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연구 커뮤니티에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기여하도록 한다.

5.2.3 대영박물관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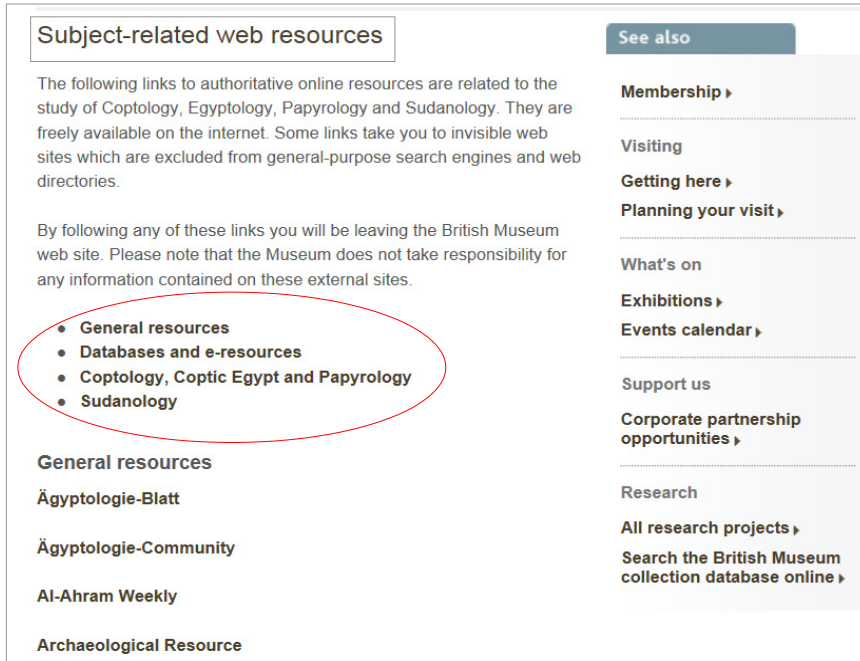
대영박물관은 1753년에 설립된 이래, 세계 각 국가의 역사·문화를 망라하는 800만 점 이상의 유물과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1870년 설립 이래 박물관과 미술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예술연구를 장려·발견시키고, 예술과 관련된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및 운영현황으로는 각 부서별 혹은 연구센터별로 있는 연구실(study room)의 도서관과 아카이브(museum archive)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서 10명, 사서 관리자 5명, 아키비스트 1명 등 16명이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장서는 인류학도서관(Anthropology Library and Research Centre)의 경우, 왕립인류학회(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도서관의 자료를 기증받아 16세기 희귀 자료와 필사본 등 130,000권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인류학 분야 신간 학술지 1,500종과 왕립인류학회가 구축한 'Anthropological Index On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4,000종 이상의 방대한 인류학 분야 학술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인류학 주제 특화된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는 인류학도서관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이용자에게도 개방되지만, 그 외 연구실 도서관은 연구의 목적으로 사전신청에 이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각 분야 주제장서개발, 연구지원서비스, 주제게이트웨이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도서관은 주제별 예술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이용자로 내부직원에게 대한 서비스를 중점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관련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영박물관의 'Collection Online'에는 3백 50만점 이상의 자료가 디지털화를 통해 일반인의 대영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장자료는 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키워드 검색은 물론 고대 이집트, 고고학, 아시아, 영국 및 유럽, 코인 & 메달, 그리스와 로마, 중앙아시아, 판화 및 드로잉작품 등 소장품부 별로 주제별 브라우징이 가능하다(〈그림 2〉 참조). 대영박물관은 기록물 영구보존을 위하여 중앙 아카이브(central archive)를 설립하여 박물관위원회 회의록, 수집, 관리 등 보고서 등의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3 시사점

국내의 박물관 도서관의 사례조사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2〉 대영박물관 도서관 이집트·수단 주제게이트웨이

첫째, 대부분의 박물관 도서관 조직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도서관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국외 세 개의 기관은 아카이브 업무수행을 통해 디지털 장서의 제공 및 보존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국내 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사서 수가 국외 도서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물론 절대적인 인적자원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외 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사서 및 아키비스트, 행정직원 등의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국내 도서관과 비교하더라도 장서 대비 사서 수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부족한 편이며, 도서관에서의 사서 수의 확보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과 연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자원의 확보

는 중요하다.

셋째, 도서관의 업무는 모 기관의 학예사 및 연구원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자원의 보존 및 매체변환, 디지털화,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특수자료의 관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스미스박물관 도서관은 연구지원과 특수장서의 관리에 약 120명의 직원이 배속되어 주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서관은 10명의 사서가 주제 관련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등 연구지원과 특수장서의 관리에 많은 직원이 배속되어 동향서비스, 연구자료 조사제공, 선택정보제공, 주제가이드 등 각 주제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미스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및 대영박물관 사례와 같이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

관 및 분관으로 구성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중앙도서관에서 분관 및 주제자료실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장자료의 통합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12개 지방박물관 및 1개의 전시관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속 박물관 자료실 소장자료의 통합검색 및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일반이용자의 도서관 자료 대출은 제한되지만, 박물관 내부 연구자료 및 발간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외부 관련 주제자료의 수집 및 링크 등을 기반으로 주제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일반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주제게이트웨이의 경우, 국립해양박물관 도서관 및 모든 국외 박물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디지털 발신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전시 및 소장품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여 관람객의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하다. 국립해양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서관은 어린이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이용자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외 박물관 모두 디지털 컬렉션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이용자에 대한 박물관 출판물 및 도록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미소니언 도서관은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온라인 전시는 물론, 북클럽, 스토리타임, 박물관 장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3〉은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 현황을 조직, 인력, 열람·대출정책, 장서, 서비스에 따라 요약한 내용이다.

〈표 3〉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 현황

기관	조직	인력	열람·대출	장서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교육과	사서 1명 공무직 3명	대출(내부이용자)	160,000권	- 희망자료신청 및 상호대차
서울역사박물관 도서관	조사 연구과	3명	대출(내부이용자 및 연회비 납부 이용자)	48,000권	- 신착도서 및 서울테마도서 안내 - 서울역사아카이브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학예 연구실	6명	대출 (관내이용자)	- 45,000권 - 어린이 해양도서 4,500권	- 주제별 해양정보가이드, 학술지목차, 선택정보, 동향서비스, 연구자료 조사,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 - 전시도록, 출판자료 디지털화 - 어린이열람실 별도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연구 교류과	라이브리퍼크 4명 (도서관 1명)	대출(관내이용자)	- 도서관 43,000권 - 어린이도서관 16,000권	- 아시아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13개의 주제전문관 - 어린이열람실 별도운영
스미소니언박물관 도서관	별도 부서	120명 (21개 도서관)	개별도서관 별도지침	2,000,000권	- 수서 및 연구지원 - 디지털 리포지터리 - 박물관 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서관	별도 부서	38명 (사서 22명)	대출(관내이용자)	997,000권	- 연구지원서비스 - 노랜도서관 어린이열람실 별도운영 - 디지털 컬렉션 - 블로그 및 뉴스레터 - 장서관발정책, 소셜미디어 정책
대영박물관	별도 연구도서관	사서 10명, 사서관리자 5명, 아키비스트 1명	개별도서관 별도지침 (인류학도서관 일반인 출입허가)	인류학도서관(130,000권, 학술지 1,500종), 고대이집트 및 수단도서관(25,000종, 학술지 200종) 등	- 주제 관련 장서관발 - 주제 게이트웨이 연구지원서비스 - 참고면담서비스

6. 면담조사

6.1 이용자 면담

6.1.1 이용자 면담 내용 및 분석방법

국립중앙박물관 이용자 요구분석을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내부 이용자 그룹 7명,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일반이용자 3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내부이용자는 연구기획부, 유물관리부, 고고역사부, 미술부, 아시아부, 보존과학부, 교육과 등 국립중앙박물관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학예 연구사나 학예연구관 각 1명씩 총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외부이용자는 내부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목적적 표집 방법에 의하여 3명을 선정하였다.

면담은 도서관 서비스 방향성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관련 선행연구(박옥남, 이

정미, 배경재, 차성중 2017) 및 국립중앙박물관 연보에 나타난 도서관 활동계획 및 보고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적절한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면담 질문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 조직, 장서, 공간, 정보서비스, 운영프로그램, 협력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4〉 참조). 면담은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면담 분석은 녹취록을 통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6.1.2 이용자 면담 결과

주요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이용목적과 관련해서는 내부이용자는 업무, 전시, 연구목적이었으며, 외부이용자는 예술, 미술사, 역사 등의 도서 이용 및 관련 논문작성을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박물관 관련된 자료 수집·제공 기

〈표 4〉 이용자 면담 내용

질문 항목	질문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인식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이용목적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비전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기능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분석	만족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장서, 공간, 인적자원,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타기관 협력 등)
	불만족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중 가장 불만도가 높은 분야(장서, 공간, 인적자원,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타기관 협력 등)
	개선 과제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이유
	차별과 전략	-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기능 차이에 대한 의견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과 기타 박물관 도서관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미래방향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향후 새로 발굴해 나가야 할 도서관 기능, 이용자, 서비스, 공간 등	

능, 박물관 업무지원 기능, 관련 도서 수집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장서의 전문성이다. 역사, 문화, 미술, 고고학 분야의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전문서적 및 외국서적, 다양한 박물관 도록의 구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야 역시 장서로 나타났는데, 내부이용자는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구독, 고전저널, 특화자료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외부이용자의 경우, 특화자료, 최신자료 등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장서의 경우, 절판도서, 다른 박물관 도록, 최신자료 수집확대, 역사·문화·예술 관련 기초자료, 웹 데이터베이스의 관외접근, 데이터베이스의 구독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관외 접근, 박물관전시 등과 관련한 도서 전시, 멀티미디어자료의 대출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공간영역은 장서 보관장소 확대, 자유로운 열람공간, 전문도서관 기능 강화, 멀티미디어 이용공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기록관리 담당자 확보, 인력보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미래방향성으로 박물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로서, 박물관 전시 등 박물관과의 연계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과 전문도서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용자 확대 역시도 국내외 DB 구축 및 구독,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역사·예술·미술 장서의 차별화 등 전문성 강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간 및 열람환경의 재

구성, 박물관 전시와의 연계성 등을 통한 문화활동의 중심점 역할, 도서관 홍보 등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면담에서 나온 주요 사항을 <표 5>로 정리한 것이다.

6.2 전문가 면담

6.2.1 전문가 면담내용 및 분석방법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방안 설계를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은 국내 문헌정보학, 사학과, 건축학 등 관련 학문분야 교수 3명, 박물관 현장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4명 - 박물관 사서 2인 및 미술관 사서 2인 - 등 총 7명으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장서, 서비스, 공간, 조직에 대한 개선사항,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미래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 면담 역시 이용자 면담과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요 전문가 면담 질문 및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6.2.2 전문가 면담 결과

주요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비전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관련 주제의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 관련 주제의 자료의 일반인 이용촉진, 연구지원, 박물관 자료의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장

〈표 5〉 이용자 면담결과

항목	면담발췌
도서관 이용목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필요한 모든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한다. (내부이용자 1) • 박물관 도서관에 도록이 많으므로 도서관에서 전시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고 개인연구를 위해서도 활용한다. (내부이용자 5) • 도서 자체가 좋은 것이 많다. 특히, 예술도서나 삽화 등의 도서는 비싸고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이용한다. (외부이용자 2) •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외에 소속기관 그리고 타 박물관에서 생산되는 서적과 단행본, 정기간행물들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내부이용자 2)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 미술, 고고학 분야에서 국내에 없는 전공 저서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내부이용자 4) • 외국 서적의 경우 개인이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희망도서구매팀도 좋고 외국에서 보내주고 있는 박물관 도록이 있다. (내부이용자 2)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의 WEB가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2) • 고전 저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널이 제공되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6) • 장서의 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현재 중국,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있는 장서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고 주류 문화도 다루고 최신자료도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외부이용자 2)
개선 사항	<p>〈장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보존기능도 중요하므로 절판된 도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6) • 90년대, 2000년대 이전 자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연구소 도서관의 자료가 더 많다. 박물관의 역사기능을 살려서 낡은 책이라도 역사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내부이용자 4) • 특화자료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부이용자 3) <p>〈공간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이용자 5) <p>〈서비스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외접근이 가능해지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6) • 멀티미디어 자료에 관심이 있는데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외부이용자 3) <p>〈조직 및 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까지 같이하는 사서가 있으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2) •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내부이용자 2)
미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의 전시와 도서관의 자료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박물관에서 전시만 보고 도서관의 자료까지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내부이용자 5) • 박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로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이용자 1) • 관람객 중에 도서관의 존재 여부를 질문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내부이용자 4) • 박물관 도서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내부이용자 2)

〈표 6〉 전문가 면담 내용

질문 항목	질문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인식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비전 및 기능
개선 사항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이유
	- 장서, 서비스, 공간 및 서가배치, 조직 및 인력 등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미래방향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향후 새로 발굴해 나가야 할 도서관 기능, 이용자, 서비스, 공간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도서관으로의 장서확충,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문화기관과 콘텐츠 및 서비스 협력,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이 도출되었다. 장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위한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한적고서, 최근 연구보고서, 주요 저널, 문화자료의 통합검색이 강조되었으며, 일반이용자를 위한 최신 트렌드 장서, 박물관 소개자료, 북큐레이션, 전자도서와 전자저널, 박물관 가이드북 등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서비스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구지원서비스, 연구자 맞춤형서비스, 관련 기관 및 사이트 소개 서비스 등이 필요하며, 도서관에 대한 홍보, 박물관 이슈와 관련한 북큐레이션, 박물관 사업 및 전시 관련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신간 안내, 저자강연 등의 문화프로그램 제공, 소장자료 정보활용교육 등을 통해 박물관 방문 이용자 및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이용자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간과 관련해서 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연구자의 공간, 장서전시공간, 자유로운 열람공간의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영상자료 및 비도서자료의 안내비치 및 이용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는 주제전문서비스 및 일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아카이브 담당자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제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박물관 자료 및 박물관학 분야의 정보 수집, 보존, 이용의 표준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 및 전문가를 위한 도서관은 물론,

박물관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대중으로의 이용자 확대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면담에서 나온 주요 사항을 <표 7>로 정리한 것이다.

6.3 시사점

국립박물관 도서관 내부이용자, 도서관 외부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목표와 기능은 박물관 및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수집·이용·보존하는 전문도서관이며, 박물관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가전문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박물관이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문화자원의 종합정보거점이며 박물관 자료 및 박물관학 분야의 정보 수집, 보존 및 이용의 표준 기관으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박물관 도서관으로서 위상 및 이용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내부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자 및 연구자 등 주제 분야 전문가 및 이용자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 이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제공하는 장서의 전문성이었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역시 전문장서의 확충이었다. 전문장서는 예술, 고고학, 역사, 미술 등 전문자료의 확충, 전문DB 구독확대, 국내외 연구보고서, 국내외 박물관 발간자료 수집

〈표 7〉 전문가 면담 결과

항목	면담 발췌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비전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관련 자료를 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 최고의 중앙박물관 도서관인 만큼,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1&6) • 국립중앙박물관을 모체로 하여 국가의 존귀한 자원을 수집, 보존, 서비스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 주요한 기능은 귀중한 기록 및 박물관 자료에 대한 수집, 보존, 서비스, 그리고 연구자(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2)
개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의 성격과 도서관(또는 기록관)의 성격이 어느 정도 융합되어 있고 서비스도 이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콘텐츠 개발 공유, 목록 공유 등에서 국가 기관을 비롯한 문화 기관들과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2) • 시설로만 인식하게 되면, 장서 열람, 관리, 보존에만 치우쳐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의 부서로서 도서관 및 도서관 연계 다방면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7)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의 내부 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관련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 이용 할 수 있도록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 주제별 연구지원형 장서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 3) • 관람객 및 방문객들이 박물관 관람과 함께,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 박물관 전시 콘텐츠를 이해,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장서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였으면 한다. 도서관 장서를 박물관 전시나 특별한 주제나 박물관에 따라 선정하고 컬렉션을 구성하고 노출시킴으로써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3) • 전문도서관답게 입문서, 교양서, 각종 박물관 관련 장서 및 시청각 자료, 디지털 자료를 일반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여 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서수집이 필요하다. (전문가 6&7)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우선은 연구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대학원 이상의 전문 연구 인력을 위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고 수동적 지원이 아니라 리에종 사서 혹은 공동 연구자의 수준에서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 2&7) • 월별 큐레이팅 주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연령별 관심사별로 이용자 타겟을 달리하는 등 박물관 이슈에 관련된 북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2)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에서 관점에서는 유물별/주제별 전시현황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획전시에 적합한 문화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 지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도서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열람공간, 비도서자료 비치 및 이용공간이 필요하다. (전문가 5&전문가 6)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 보존, 서비스 등 담당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업무분장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 6)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미래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다. (전문가 7) • 내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박물관학, 역사학, 고고학 등의 전문가에게도 가장 선진적인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 2&전문가 6) • 박물관에 부속된 수동적 지원 기관이 아닌 박물관의 자원을 관리하여 서비스를 창출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2)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과의 전문장서 차별화, 국립기관 위상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전문도서관 장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주제 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및 주제전문서비스

를 비롯, 박물관 이슈와 관련한 북큐레이션이나 박물관 전시·교육업무와 관련한 큐레이션 등의 박물관 도서관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끄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간 및 시설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편한 열람 분위기 조성, 내부이용자 및 전문가를 위한 조사연구공간, 영상 및 비도서 자료에 대한 개방 및 열람 공간 확대, 박물관 관련 주제의 북큐레이션 공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업무의 개선은 전문 인력 확충, 독립부서로의 업무확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7.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발전방안

7.1 박물관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국립중앙박물관은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민 중심의 박물관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고고학, 역사, 예술 등 단행본, 도록, 연속간행물 등의 장서 165,000권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 대표 국립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비전과 핵심가치의 기본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립박물관 도서관을 대표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본질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비전 및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용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비전 및 목표는 박물관이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을 위한 문화자원 종합

정보거점이며 박물관 자료 및 박물관학 분야의 정보 수집과 보존 및 이용의 표준 기관으로 성장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도서관으로서 박물관 관련 전문 주제자료를 바탕으로 박물관 내부이용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전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 관련 분야 연구자나 대학원생 등 전문 주제 이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일반 대중을 위한 박물관 관련 분야 지식정보의 제공과 이해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자료실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박물관 주제 분야 연구자는 물론이고 이 분야에 관심을 있는 박물관 관람객 및 일반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박물관 관련 주제의 지식정보 자원을 집중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물관 지식정보서비스 구심체’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첫째, 박물관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 둘째, 국가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 박물관 및 관련 주제 분야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 셋째, 국민의 국가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게이트웨이, 넷째, 박물관 자료 및 박물관학 분야의 정보 수집·보존·이용의 표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기관을 도서관 목표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박물관 장서, 서비스, 조직 및 인력, 공간 등 주요 업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7.2 박물관 콘텐츠 내실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박물관 내의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콘텐츠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주요 목표 및 기능에 근거하여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장서확충, 대중을 위한 박물관 관련 지식정보서비스 장서개발, 디지털 자료 수집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최고 수준의 전문장서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장서는 단행본 및 한국서, 일본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비도서, 연속간행물, 고서, 특수자료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사례조사에서 국내외 박물관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역사 및 예술, 미술과 관련한 단행본, 최신 학술자료, 도록 등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용자 면담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제공하는 장서의 전문성이었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역시 전문장서의 확충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내부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장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술, 고고학, 역사, 미술 등 전문 자료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의 특성화, 공공도서관과의 전문장서에서의 차별화, 최신자료의 구비, 절판도서 및 저널에 대한 구입 등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립기관 위상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장서개발이 필요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박물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도록, 학술토론

회, 연보, 소식지 자료의 망라적 입수가 필요하다. 박물관 정책과 문화가 전문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박물관, 미술관 등의 발간자료 수집하고, 주요국 국립박물관 발간자료 수집 확대 한국과 일본에 편중된 아시아 관련 자료를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아랍권 등 범아시아 및 전 세계로 점차적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일반 이용자를 위한 박물관 인접 분야 장서 확충이 필요하다. 이용자 면담, 사례조사, 전문가 면담을 진행한 결과,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 분야에 대한 국민 지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서수집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전문도서관 역시, 관련 주제 및 인접 주제의 입문서, 교양서 등의 장서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박물관 관련 주제 및 인접 주제에 대한 장서 확충을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인지도 확보 및 대중의 박물관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박물관 관련 주제 기본서, 교양서, 미술, 예술, 고고학, 역사, 문화재, 문화 등 관련 주제 문학자료, 각국의 박물관 관련 장서, 최신 트렌드 및 최신 장서를 포함한 일반도서, 각국의 박물관 관련 장서안내, 국내외 박물관 내 다른 도서관 소개 및 안내 책자, 박물관 관련 주제 분야 대중잡지, 박물관 관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역사 분야의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수집, 박물관에서 시행된 전시 및 공연, 관련 분야 전시, 공연, 방송자료(다큐멘터리, 영화, 강의) 등의 비도서 자료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구축 등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확

충이 필요하다. 전자자료 구독 및 구입의 확충은 출판문화 변화에 따른 전문 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반의 추세이다. 전문도서관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인쇄 매체에 대한 정보요구가 감소로 인하여 인쇄 매체 소장공간을 축소하고 전자자료 확충 및 복합미디어 활용 공간 확충을 통한 학술연구 전문도서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한중엽 2013; 남은경 2018). 이용자 면담에서도 내부이용자 의견에서 전문DB 구독 확충 및 관외 접근 허용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며, 외부이용자 의견에서도 전자책 및 전자저널의 확충,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콘텐츠의 확충 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 면담 역시 박물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의 확충,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이 중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호주국립박물관 도서관은 현재 총 17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전자저널 역시 38종을 구독하고 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도서관은 총 4종(DBpia, KISS, KR-CON, PPI 전자저널)의 웹DB,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은 총 4종의 예술 관련 분야 웹DB(ArtSource, Art Museum Image Gallery, Art & Architecture in Video, DBpia) 및 전자저널 10종,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4종(DBpia, KISS, Kripia, e-article)을 구독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2종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만을 구독하고 있으므로, 내부이용자의 원문이용요구를 원문복사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므로 정보입수의 신속성이 낮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자료 관리의 도서관과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접근이 요원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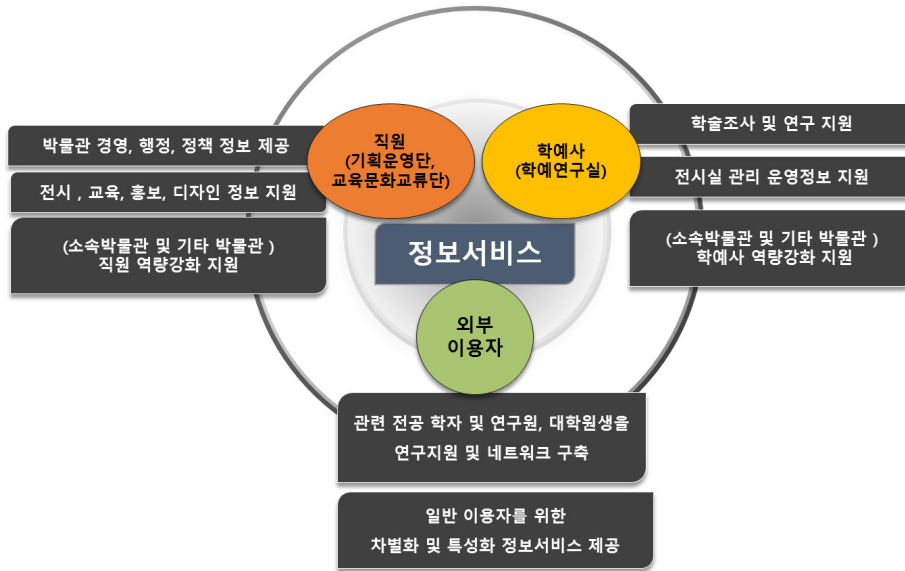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집, 보존, 조

사·연구, 전시, 교육, 문화교류 등 박물관 업무 지원, 전문가 및 연구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독하고, 일반이용자를 위한 관련 주제의 전자책 및 전자잡지 구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립박물관 발간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박물관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서관발의 확실성을 위해서 명문화된 장서관발정책 역시 필요하다.

7.3 전문도서관 서비스 강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서는 내부직원 및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의 박물관 관련 전문자료를 기반으로 참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박물관 도서관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소장자료 검색을 위한 온라인 목록만 박물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소장자료 및 관련 자료의 안내 정도를 비롯한 간단한 참고정보 서비스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물관 도서관의 이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서비스 강화, 내부이용자 및 외부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외부 연구자 및 일반이용자를 위한 주제전문서비스, 대국민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첫째, <그림 3>과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내부 이용자(학예사, 직원)와 외부 이용자(관련 전공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일반이용자)



〈그림 3〉 이용자 대상별 서비스 모델 및 과제

에 따라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방안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내부의 기획운영단 및 교육문화교류단 직원 및 연구원을 위해서 박물관 경영·행정·정책 정보의 제공, 전시·교육·홍보·디자인 정보서비스를 통한 구성원의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학예사 및 연구원을 위해서는 학술조사 및 연구지원, 전시실 운영관리 정보서비스를 통한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지원되어야 한다. 외부 관련 전공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위한 연구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 및 소장품, 예술가 등 관련 정보의 제공과 일반 공공도서관과 차별화 및 특성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이 요구된다.

둘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학예사, 관련 전공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및 전문가 면담에서도 전문도서관으

로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강조된 부분이며, 국내외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박물관 도서관의 주 타겟이용자가 내부직원 및 관련 전문연구자임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연구지원서비스는 연구지원을 위한 고객 니즈 분석을 정례화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소장 자료의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신착자료서비스 및 SDI서비스, 맞춤형 연구컨설팅 서비스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제정보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주제정보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외부연구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의 지식을 확충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수요자의 시간적 제약, 접근·이용의 편의성 추구, 인터넷 정보유통 및 디지털 접근패

리타임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 정보의 우선 수집과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내외 이용자를 위한 한국의 문화·예술·역사를 비롯하여 고고학·미술사학·박물관학 주제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의 인적·물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속박물관 도서관, 각종 국내 유관기관 도서관과 협력형 참고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박물관 관련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박물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관 소개 웹페이지와 소장자료의 단순 검색을 지원하는 온라인 목록(OPAC)은 한계가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개선으로 소장자료 통합검색은 물론 연구지원, 도서관서비스, 박물관 출판물,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 참고봉사, SDI서비스의 신청, 희망도서 신청 등이 가능한 이용자 친화적 홈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주제게이트웨이의 구축과 박물관 아카이브(기관 리포지터리) 등 포털서비스를 위한 접근점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의 추가적 개발을 통해 기존의 디지털 도서관을 뛰어넘는 서비스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언어별, 생산주체별 고품질 박물관학 주제정보의 생산 동향 분석 및 정보자원을 확보하여, 주제게이트웨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포털서비스 구축은 도서관 OPAC, 아카이브, 주제게이트웨이, 박물관 소장품 검색, 박물관 연구팀 및 연구원에 대한 정보, 연구동향분석, 연

구지원(컴퓨팅 분석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 등), 도서관 블로그, 협력형 참고서비스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박물관을 모체로 한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는 박물관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외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업무(박물관 자료 관련 전시 및 북 큐레이션, 박물관 관련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독서회 운영 등)를 개발·기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박물관 관련 특화주제 신간 안내, 전시 및 소장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귀중본, 고서, 도록, 카탈로그, 발굴보고서, 박물관 및 전시 관련 통계데이터 등 다양한 박물관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도서관 차원의 전시, 체험, 초청강연,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대국민서비스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블로그나 SNS의 운영, 도서관 소식지(웹진, 뉴스레터)의 정기적 발행 등을 통하여 도서관 소식, 공지사항, 도서관 이용자 프로그램, 박물관과 관련된 도서의 안내 등 박물관과 도서관, 이용자의 간격을 좁히고 이용자와 적극적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7.4 공간의 유연성 강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높은 천고 및 수평적 공간으로 인한 개방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서관의 공간구성이 부족하다. 현재 검색 PC 4대, 열람석 60석 미만으로 소장 장서에 비해 장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면담

분석 결과, 도서관 내 서고의 포화 및 전체 면적 대비 열람공간 부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도서관의 차별화된 공간구성 및 상징성 부각이 필요하며, 박물관 환경친화적인 도서관, 부족한 자료 열람공간 확보, 실물 도서관에 이용자가 찾아오고 모이게 하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공간구성을 목표로 이용자 친화적 도서관 공간 및 시설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시서가 및 열람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양서, 전시관련 큐레이션 장서, 신착자료 및 사서추천도서, 고고학, 역사학, 예술, 미술, 박물관학 등의 주제와 관련한 큐레이션 장서, 박물관 발간자료 등을 배가하여 박물관 일반 이용자 및 박물관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내·외부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시서가 및 열람공간을 확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을 도울 수 있다.

둘째, 박물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기자재 교체를 통한 검색시설 및 멀티미디어 열람영역 개선이 필요하며,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영역은 추후 아카이브자료, 디지털 콘텐츠, 음원, 사진, 영상 등 생생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박물관 내에서의 도서관의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 활용이 필요하다. 박물관 및 도서관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이용자의 박물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박물관 도서관 공간 및 시설

활용방안이 요구되는데, 도서관 입구 및 박물관 내 도서관 큐레이션이나 특수장서를 홍보할 수 있는 KIOSK를 설치하는 것과 도서관 외부 공간에 열린서가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5 아카이브 역할강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보유하고 있던 일제의 우리 문화 유산 조사 및 이동에 관한 자료 약 150,000여 점, 유리건판 사진자료 38,000여 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소속박물관 소장품, 기타 지방 공사립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고화질 이미지 촬영 및 스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에서 생산하는 각종 행정문서, 기록물 및 보고서 등의 발간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가 연구기획부, 유물관리부, 도서관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 중이어서, 종합적인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도서관의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관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기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박물관 생산자료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나아가 이용자에게 박물관 자료에 대한 원스탑 정보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의 박물관 내에서의 인지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 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한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생산 자료의 디지털 작업을 통한 도서관 자료와의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박물관 생산

전문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수집·활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서관의 박물관 기관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로서의 역할확대 및 기관 리포지터리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7.6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서비스 및 연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및 대국민서비스 업무 담당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관내 학예인력을 포함한 전문 연구자들의 박물관 관련 주요 조사·발굴, 연구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맞춤형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박물관 관련 주제전문 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고고학, 역사, 미술, 예술과 관련한 주제전문성을 갖춘 전담사서가 연구지원서비스, 큐레이션서비스 등 관련 주제전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 학예인력과의 협업을 통해서 박물관 관련 분야 자료구입, 정보제공, 참고봉사, 연구컨설팅 서비스 등 낮은 단계의 주제전문서비스를 협업으로 수행하고 점차 그 서비스 정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일반 외부이용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국내 박물관 분야 최고 전문도서관이

자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 관련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협력형 참고정보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등 관련 대국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확보 필요하다. 전담사서의 열악한 인적구성은 도서관의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에서의 도서관의 인지도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 박물관 도서관의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국내외 기관의 벤치마킹 및 교육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뒷받침되어야 도서관의 양질의 서비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8. 결론 및 제언

8.1 결론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가 대표 박물관 도서관으로서 박물관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의 박물관학 관련 자료 16만 여점을 비치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고고학, 역사, 미술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물관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담사서가 없거나 1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지방 국립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역시도 자료구입비도 갖추지 못한 박물관 도서관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 대표 박물관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도서관 역할강

회는 박물관 도서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현황조사,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이용자 면담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결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박물관 내부직원 및 관련 학계 연구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등 국내 최고의 박물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에도 인력의 부족 및 예산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결과, 박물관은 내부직원이 가장 주요한 이용자이며, 관련 분야 연구자 및 박물관 관람객을 포함한다. 또한 전문도서관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지원서비스, 아카이브에 대한 도서관 역할 강화, 주제전문서비스,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강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외 박물관 도서관들이 사서 및 아카이브, 행정직원 등의 직무분장을 명확히하며, 연구지원서비스나 특수장서에 대한 주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디지털 발신기능 강화를 위하여 모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 및 협력기관 자료의 통합검색 등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은 계속 강조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전문장서 및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 전문 정보서비스, 인력의 확충, 박물관 관람객과 대중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다음의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모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명과 목표를 지원하고, 박물관 및 관련 주제 분야 지식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대표 국가 박물관 도서관으로서 국민의 국가 문화자원 지식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국립박물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장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박물관 내에서의 도서관 역할을 증대하고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 지식정보의 확충, 온라인 콘텐츠 구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발신기능 강화, 연구지원서비스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박물관 주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강화를 통한 박물관 생산 정보자원의 관리·보존 역할 강화, 박물관 도서관의 특성화를 기획·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필요하다.

8.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박물관 도서관을 분석하고자 문헌조사, 사례조사, 박물관 도서관의 내·외부 이용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용자 연구를 면담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폭넓은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설문조사

를 통해 광범위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도출된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실행하고 정교하게 수정·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물관·도서관·기록관의 연계는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이러한 라키비움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내에서 도서관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발전방안의 제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박물관 내의 도서관의 역할 및 위치를 고민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online]. [cited 2018.6.12].
<https://www.acc.go.kr/ac_c/library/intro>.
- 국립중앙박물관. 2017. 『2016 국립중앙박물관 연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18. 『2017 국립중앙박물관 연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online]. [cited 2018.6.12]. <<https://lib.knmm.or.kr/>>.
- 김경아. 201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전략. 『KSLA bulletin』, 3: 20-26.
- 김은정. 2003. 21세기 박물관과 교육자료의 활용. 『박물관학보』, 6: 54-78.
- 남은경. 2018.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KSLA Bulletin』, 9: 36-42.
- 박미향. 2014. 전문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위기를 대비한 도서관기획 이야기. 『KSLA bulletin』, 6: 10-16.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자료실. [online]. [cited 2018.6.10]. <<http://library.museum.seoul.kr/>>.
- 오용식, 황진용, 이용재. 2016.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75-200.
- 유안나. 2015. 한국원자력연구원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 『2015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협력교육과정』. [online]. [cited 2018.7.15].
<<http://www.ksla.info/pc/sub03/sub0302.html?A=8&B=&C=&uid=265&page=2>>.
- 이미영. 2010. 박물관내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전략. 『KSLA bulletin』, 2: 28-42.
- 정다정. 2017. 도서관 홍보 및 수익프로그램 마케팅 전략. 『2017년도 KSLA 워크숍 및 정기총회』. [online]. [cited 2018.7.15].
<<http://www.ksla.info/pc/sub01/sub0101.html?A=3&B=&C=&uid=587&page=1>>.
- 조찬식, 강성란. 2015.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5-25.

천진기. 2015. 박물관 자료와 박물관 미래. 『박물관학보』, 28: 85-96.

한미희. 2018. 전문도서관의 새로운 공간 활용. 『2018년 KSLA 워크숍 및 정기총회』. [online]. [cited 2018.7.14].

〈<http://www.ksla.co.kr/pc/sub01/sub0101.html?A=3&B=&C=&uid=669&page=1>〉.

한중엽, 서만덕. 2013. 해양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163-187.

허정민, 한혜련. 2015. 전문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적용된 서비스스페이스 요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7(2): 147-152.

황제연. 2014. 국방과학연구소의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참가후기. 『KSLA bulletin』, 6: 71-75.

東京國立博物館資料館. [online]. [cited 2018.6.20].

〈<http://webopac.tnm.jp/top/index.do?method=change&langMode=JPN>〉.

British Museum Library. [online]. [cited 2018.6.20].

〈https://www.britishmuseum.org/research/libraries_and_archives.aspx〉.

Libraries and Research Centers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online]. [cited 2018.6.20].

〈<https://www.metmuseum.org/art/libraries-and-research-centers>〉.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7. Annual Report for the Year 2016-17. [online]. [cited 2018.6.20].

〈<https://www.metmuseum.org/-/media/files/about-the-met/annual-reports/2016-2017/annual-report-2016-17.pdf>〉.

Smithsonian Libraries. 2016. Smithsonian Libraries Annual Report 2016. [online]. [cited 2018.6.15].

〈https://repository.si.edu/bitstream/handle/10088/32573/2016-Annual_Report.pdf?sequence=1&isAllowed=y〉.

Smithsonian Libraries. [online]. [cited 2018.6.20]. 〈<https://library.si.edu/>〉.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SIA Culture Center Library Park. [online]. [cited 2018.6.12].

〈https://www.acc.go.kr/ac_c/library/intro〉.

Cho, Chan-Sik and Sung-Ran Kang. 2015. "A Study on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Museum Librari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5-25.

- Chun, Jin-Ki. 2015. "Museum Materials and Museum Future." *Museum of Fine Arts*, 28: 85-96.
- Chung, Da-Jung. 2017. "Library Promotion and Revenue Program Marketing Strategies." *KSLA workshop and regular general meeting of 2017*. [online]. [cited 2018.7.15].
<<http://www.ksla.info/pc/sub01/sub0101.html?A=3&B=&C=&uid=587&page=1>>.
- Han, Jong-Yup and Man-Deok Seo. 2013.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age Behavio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163-187.
- Han, Mi-Hee. 2018. "Use of New Space in Professional Library." *2018 KSLA workshop and regular general meeting*. [online]. [cited 2018.7.14].
<<http://www.ksla.co.kr/pc/sub01/sub0101.html?A=3&B=&C=&uid=669&page=1>>.
- Heo, Jeong-Min and Hae-Ryon Han. 2015. "A Servicescape Elements applied to Space Configuration of Special Libraries: Focusing on Corporate Special Libraries." *AIDIA Journal*, 17(2): 147-152.
- Hwang, Jae-Yeon. 2014. "Participation in Library Evaluation of National Defense Science Institute." *KSLA bulletin*, 6: 71-75.
- Kim, Eun-Jung. 2003. "Utilization of Museums and Educational Materials in the 21st Century." *Museum of Fine Arts*, 6: 54-78.
- Kim, Kyoung-Ah. 2011. "Information Service Strategy using Social Media." *KSLA bulletin*, 3: 20-26.
- Lee Mi-Young. 2010. "Current Status of Library Operations in Museums and Development Strategies as Specialized Libraries." *KSLA bulletin*, 2: 28-42.
- Nam, Eun-Kyung. 2018.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 of Research Data Management: Focused on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SLA Bulletin*, 9: 36-42.
- National Maritime Library. [online]. [cited 2018.6.12]. <<https://lib.knmm.or.kr/>>.
- National Museum of Korea. 2017. *Annual Report for National Museum of Korea 2016*.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National Museum of Korea. 2018. *Annual Report for National Museum of Korea 2017*.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Oh, Yong-Sik, Jin-Yong Hwang, and Yong-Jae Lee. "A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Constructing the Maritime and Ocean Digita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175-200.
- Park, Mi-Hyang. 201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pecial Library: A Story about

Planning for a Crisis.” *KSLA Bulletin*, 6: 10-16.

Seoul Museum of History Library. [online]. [cited 2018.6.10]. <<http://library.museum.seoul.kr/>>.

Yu, Anna. 2015. “Best Practice of KAERI Library Operation Evaluation.” *National library librarian training and cooperative education curriculum in 2015*. [online]. [cited 2018.7.15]. <<http://www.ksla.info/pc/sub03/sub0302.html?A=8&B=&C=&uid=265&page=2>>.